

# 후보 난립 속 2강 구도... 무소속 단일화가 최대 변수

## 여수시장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때문에 60~65% 정도인 14~15만여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후보 난립 때문에 6만5000~7만5000여 표만 얻어도 당선 가능성이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장 선거에서는 현 시장인 무소속 김중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주철현 후보 간 대결이 치열하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김상일 후보, 무소속 김동채·정정균·한창진 후보가 이변을 노리고 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에 의한 판세는 주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김중석 후보가 득표에서 역전을 노리는 형국이다.

전남 CBS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26

## 새정치 vs 무소속 대결치열

### 7만여표 얻으면 당선 될 듯

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은 19.2%) 결과, 주 후보의 지지도가 39.5%로 22.7%인 김중석 후보를 16%포인트 이상 앞섰다. 이어 한창진 후보 6.8%, 김동채 후보 5.6%, 김상일 후보 4.4%, 정정균 후보 0.2% 순이었다. 부동층은 20.8%였다.

이와 관련, 주철현 후보 측은 “김중석 후보의 출마에 대한 입장 변화 등으로 주 후보가 15~17%포인트 앞서왔다”며 “이번 여론조사도 이 추세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중석 후보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은 경선을 대비해 작신을 많이 했다”며 “그 결과 여론조사가 왜곡됐고 실제 민심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상황에서 대형 변수가 터졌다. 20% 이상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이 28일 탈당 후 김중석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중석 후보 측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분위기다. 김 전 의장의 지지와 캠프 참여로 대선 역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반면, 주철현 후보 측은 “김 전 의장의 행보는 경선 직후부터 예고돼 있어서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 ■여수시장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주철현(55)	김상일(51)	김중석(73)	김동채(56)	정정균(59)	한창진(58)
경력	·변호사 ·전 광주지검장	·시의원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운동 본부장	·여수시장	·경영인 ·전 여수경찰청 공동대표	·공인회계사 ·전 삼일회계법인 상인 고문	·시민운동가 ·여수교육청 교육미래 위원장

이 외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변수는 김중석·김동채 후보 간 단일화 여부다. 김중석 후보 측은 “불밀 접촉을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김동채 후보는 5% 이상의 고정지지층이 있어 박

병 승부에서 승패를 결정 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주철현 후보 측은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어렵다고 알고 있다”며 “또 김중석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무소속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15% 이내여서 변수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인 여수에 안철수 대표가 한 번만 와도 선거는 끝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역대 무소속 후보 강세 지역... 부동층 15% 어디로

## 순천시장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허석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수근 후보, 현직 시장인 무소속 조중훈 후보가 출마해 자웅을 겨루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50.6% 득표율로 35.5%에 그친 민주당 조보훈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2년 전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조중훈 후보가 35.9%를 얻어 당선된 반면 민주당 허정인 후보는 27.1%에 그쳤다.

이번 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중훈 후보의 우세 속에 허석 후보가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

## 최근 여론 조사서 큰 차이

### 새정치 프리미엄 반영 논란

전남 CBS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은 16.5%) 결과, 조중훈 후보가 52.5%의 지지율로, 26.2%에 그친 허석 후보를 크게 앞섰다. 무응답층은 15.1%였다.

이에 조중훈 후보 측은 “조 후보와 허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역량 평가가 끝난 상태”라며 “15% 부동층이 변수이나 이미 선거 흐름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 후보 측은 “조 시장의 지지율은 하락세고 허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여서 앞으로 역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판세 평가가 다른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 당 프리미엄 규모와 반영 시점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2년 전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시에 무소속 조 후보 25~28%, 민주당 허정인 후보 10% 내외 정도였는데 허 후보가 공천을 받은 3일 뒤 31%대 33%로 역전됐다”며 “즉 20%포인트 정도의 당 프리미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허 후보 지지율이 빠지고 조 후보는 계속 지지율을 올리면서 낙승했다”며 “이는 당 프리미엄이 공천 3~

4일만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7일 조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던 시점에 47%(조 후보)대 17%(허석)였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52.5%대 26.2%로 나왔다”며 “당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공천 혼란과 갈등으로 프리미엄이 대폭 낮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허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공천을 늦게해 아직 당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당 프리미엄이 계속 붙으면 선거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원과 도의원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다보니 새정치민주연합 측 후보의 지지

율은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의 고정지지층을 갖고 있는 노관규 전 시장의 허 후보 지원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은 엇갈렸다.

허 후보 측은 “노 전 시장이 2년 후 자신의 총선거를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조 후보 측은 “노 후보 지지층 중 허 후보에게 간 것은 고작 5% 내외일 것”이라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

## ■순천시장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
이름	허석(49)	이수근(46)	조중훈(60)
경력	·정당인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	·정당인 ·통합진보당 순천지역 위원장	·순천시장

# 후보마다 “내가 强” 큰소리... 60% 넘는 외지인 선택 주목

## 광양시장

광양시는 외지인이 60%이상 돼 여당과 무소속 후보 지지세가 전남 어느 지역보다 많은 등 독특한 성향을 보여왔다.

4년 전 무소속 이상용 시장이 46.6%를 득표, 39.3%에 그친 민주당 서종식 후보를 제치면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구도가 달라졌다. 우선 현역 시장이 3선 연임으로 출마하지 못해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졌고 여당 후보도 출마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재무 후보가 나섰고 통합진보당 유현주 후보, 무소속 정현복·정인화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경선

## 현역 3선 제한 달라진 구도

### 탈당 이정문 표 향방 관심

에서 패배한 이정문 후보의 동생인 이상문 씨가 출마했으나 중도 사퇴했다.

일단 현재 판세에 대해 김재무 후보 측은 ‘1강 2중’, 정현복 후보 측은 ‘양강’, 정인화 후보 측은 ‘3강’으로 보는 등 후보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4월을 기점으로 김재무 후보가 지지율 1위로 올라선 이후 한번도 역전당하지 않고 있다. 이어 정현

복, 정인화 후보 순으로 지지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CBS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은 22.1%) 결과에서도 지지도 1위는 김재무 후보(29.1%)가 차지하고 정현복(23.4%)·정인화(15.6%)·유현주(8.6%) 후보 순이었다. 부동층은 23.2%였다.

이 결과에 대해 정현복 후보 측은 “정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4월 이전 여론조사 응답률은 3~4%에 불과했는데 언제 부턴가 응답률이 10% 이상 됐다”며 “당 경선에 대비한 착신 때문으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재무 후보 측은 “정현복 후보는 확실한 고정지지층이 있으나 표 확장성은 크지 않다”며 “그것은 6년 동안 인지도를 올린 것에 비해 선거전이 닦치지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점이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판세 속에 무소속 이정문 후보가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정현복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현복 후보 측은 “이 후보는 최대 20%까지 지지세가 있어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적으로 이 후보가 서쪽 출신이어서 동광양권 대표 주자인 우리 후보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대했다.

반면, 김재무 후보 측은 “이 후보의 무소속 행보에 대해 시민이 의아하게 생각한 다”며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강준석·김현욱 광양시장 예비

후보가 김재무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에게 합류해 오히려 우리 지지층이 두터워졌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양시장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	무소속
이름	김재무(54)	유현주(43)	정현복(64)	정인화(56)
경력	·정당인 ·전 전남도의원	·정당인 ·전 전남도의원	·전 광양시 부시장	·전 광양시 부시장

## 여성가족부 인정

# 2014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6월 1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목)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만자는 제적처리함.)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에 아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떡터, 산낙지

가맹비가 따르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결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농협보증 에스프로 가입  
특허출원 41-2014-0016935  
사업자번호 408-86-08501  
계좌번호 농협 301-0147-7265-51

**HG 해감 노가리 호프**  
농협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